

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한겨레 4월 23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한겨레는 4.23일 「상장사 ‘온실가스 배출량’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·사회책임·지배구조 (ESG·이에스지) 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.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.”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-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「“26년 이후”」로 연기하되,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아울러 4.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,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,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

*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,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, 주요 참고기준인 IFRS-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(‘23.6)된 점 등 감안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원 (02-2100-2691)
			사무관	이지호 (02-2100-268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